

D도시에 종사하는 일부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우울과의 관련성

한세영^{1*}
¹혜전대학 치위생과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contents, Depression in dental hygienists in D City

Se-Young Han^{1*}

¹Dept. of Dental Hygiene, Hyejeon College

요 약 본 연구는 임상 치과위생사들의 우울수준을 파악하고, 관련요인을 알아보고자 D도시 소재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221명을 대상으로 2009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치과위생사의 우울수준은 정상군 79.1%, 경도 우울군 15.4%, 중등도 우울군 4.1%, 중증 우울군 1.4%로 나타났다.
2. 우울수준은 전문대졸 이하 군일수록, 월평균급여가 적을수록,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만족하지 못하다」는 군일수록, 업무에 대한 적성이 「맞지 않는다」는 군일수록, 직장에서의 상사나 동료 간의 「유대관계가 좋지 않다」는 군일수록,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군일수록,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군일수록, 음주를 하는 군일수록,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군일수록, 업무요구도가 높을 때, 업무자율성이 낮을 때, 직장 내 상사의 지지도가 낮을 때 우울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3. 우울수준과 관련변수들과의 상관관계는 업무에 대한 만족도, 업무에 대한 적성, 직장에서의 상사나 동료 간의 유대관계, 주관적인 건강상태, 상사의 지지도, 동료의 지지도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업무의 요구도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우울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여러 요인들을 개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시행 및 관리방안이 모색되어 향상을 통한 우울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degree of depression of dental hygienist was analyzed to reveal the various factors related to them. The self-administered between June 1st, and 30st, 2009, questionnaires were filled out from 221 dental hygienist in D City.

- 1.The distribution for depression degree has shown the rate as 79.1% in normal range group , 15.4% in mild depression group, 4.1% in moderate depression group and 1.4% in severe depression group,
- 2.As for depression, junior college, lower salary, poor sense satisfaction in work, not fit to the job, low personal relation with peer works or supervisors, poor subjective condition of health, without regular eating habits, without alcohol drinking, without regular exercise, in the group with higher level of job demand, lower job autonomy and lower supervisor support than their respective counterparts.
- 3.Concerning cor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various factors, while level of depression correlated with was negatively sense satisfaction, fit to the job, personal relation with peer works or supervisors, subjective condition of health, spervisor support, coworker support, i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job demand.

Resulting from these results, in order to resolve depression properly, implementation and maintenance of program should be renewed to improve various kinds of factors.

Key Words : Dental hygienist, Job stress, Depression

*교신저자 : 한세영 (syhan111@hanmail.net)

접수일 09년 09월 18일

수정일 09년 10월 20일

게재확정일 09년 11월 12일

1. 서론

현대사회는 서비스업으로 대표되는 3차 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서비스기업들은 생산성 증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 근로자들의 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1].

직업생활은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근원이 되는 동시에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사람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2-3]. 특히 직무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느끼는 사람은 신체적으로 불면이나 체중의 감소 및 증가, 두통, 오심, 피로, 구토 등의 증상과 정신적으로 우울증, 주의집중저하, 수면장애등과 같은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4].

고도로 발달된 과학문명과 인간생활의 급격한 변화에 현대인은 어느 때보다 스트레스를 자주 경험하게 된다[5]. 특히 인간생활에 직접 관여하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전문직인 의료 종사자들은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가 더 심각하다[6].

최근 대기업의 병원사업 진출, 민간보험 확대 및 세계 무역기구의 의료시장 개방 압력 등으로 의료계는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는[7] 치과 분야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치과 의료계에서 치과위생사는 구강진료영역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치과 의료서비스 질의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8]. 그러나 치과위생사들은 많은 업무량과 불분명한 업무구분 등에서 오는 직무스트레스로 조직내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치과위생사 업무의 양적, 질적 기대와 임상업무와의 부조화는 치과위생사로서 스트레스 가중시키며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는 한 점차 축적되어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탈진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다[9].

우울은 여성의 중요한 건강문제이며[10],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인식 및 역할 모호성 등에 의해 된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이 나타날 수 있다[11]. 치과위생사는 직무스트레스로 의욕상실과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치과위생사의 우울은 개인의 건강문제 뿐 아니라 낮은 생산성과 업무능률의 저하로 인해 이직 등과 같은 극단적 행동을 나타낼 수 있어 조직에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12].

또한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우울은 직무스트레스나 주변으로부터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에 따라서 상이하게 표출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13]. 그러나 지금까지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우울과 이와 관련요인들을 포함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업특성 및 건강관련행위 특성을 비롯한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치과위

생사의 우울수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D도시 소재 일부 치과 의원에 재직중인 치과위생사 250명을 편의표본추출하여 선정하였고, 2009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조사된 설문지 250부 중 불완전하게 응답한 29부를 제외한 221부를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방법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설문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치과위생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직업관련 특성 12문항, 건강관련행위 6문항, 직무스트레스요인 14문항, 우울수준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직무스트레스요인에 대한 내용은 Karasek 등[14]의 직무내용설문지(Job Content Questionnaire; JCQ)를 우리나라 근무환경에 맞게 번안하여 타당도가 검증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15]. JCQ는 직무스트레스의 요인으로서 업무의 요구도 5문항, 업무의 자율성은 의사결정권한 3문항과 기량의 활용성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4문항에 대해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각각에 대해 0-1-2-3점을 부여 하였다. 또한 직장의 사회적 지지를 상사나 동료로부터의 지지는 「매우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조금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여 각각에 대해 3-2-1-0점을 부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값을 기준으로 「높은군」과 「낮은군」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우울수준의 측정에는 Zung[16]의 자기평가식 우울척도(Zung Self-rating Depression Scale; SDS)를 이용하였다. SDS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마다 4점 척도로 긍정적인 문항에는 “항상 그렇다” 1점, “자주 그렇다” 2점, “가끔 그렇다” 3점, “그렇지 않다” 4점의 점수를 주었고, 부정적인 문항에는 역으로 “항상 그렇다” 4점, “자주 그렇다” 3점, “가끔 그렇다” 2점, “그렇지 않다” 1점의 점수를 주어 총 득점 합계(20~80점)를 우울의 지표로 하였다. 평가는 50점 미만을 정상, 50-59점을 경도 우울증, 60-69점을 중등도 우울증, 70점 이상을 중증 우울증으로 하였다.

2.3 분석방법

연구 자료는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인 SPSS 13.0을 이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우울수준의 관계는 Chi-square test로 검정하였다. 각 독립변수에 따른 우울수준의 총 점수에 대한 항목간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우울수준과 관련된 제 변수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량의 유의수준은 $p < 0.05$ 로 하였다.

3. 연구성적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포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포는 연령별로는 25세 이하군 69.2%로, 결혼상태별로는 미혼군 72.4%로, 취미생활유무별로는 취미생활이 있는 군 54.8%로,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졸 이하군 91.4%로 그렇지 않은 군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표 1).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포

| 구 분 | 명 | % |
|---------|-----|-------|
| 연령(년) | | |
| ≤25 | 153 | 69.2 |
| 26≤ | 68 | 30.8 |
| 결혼상태 | | |
| 미혼 | 160 | 72.4 |
| 기혼 | 61 | 27.6 |
| 취미생활 | | |
| 한다 | 121 | 54.8 |
| 안 한다 | 100 | 45.2 |
| 교육수준 | | |
| 전문대졸 이하 | 202 | 91.4 |
| 대졸 이상 | 19 | 8.6 |
| 계 | 221 | 100.0 |

3.2 연구대상자의 직업관련 특성별 우울수준

직업관련 특성별 우울수준은 월평균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군에서 중등도의 우울수준을 보였고($p=0.019$), 1일 평균 근무시간이 10시간 이상인 군에서 경도, 중증의 우울수준을 보였고($p=0.018$),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인 군에서 경도, 중등도, 중증의 우울수준을 보였고($p=0.000$), 업무에 대한 적성은 「맞지 않는다」는 군

[표 2] 직업관련 특성별 우울수준

| 구 분 | 우울수준 | | | | p-값* |
|----------------------|-----------|----------|--------|--------|-------|
| | 정상 | 경도 | 중등도 | 중증 | |
| 근무경력(년) | | | | | 0.343 |
| ≤3 | 109(79.0) | 19(13.8) | 7(5.1) | 3(2.2) | |
| 4≤ | 66(79.5) | 15(18.1) | 2(2.4) | 0(0.0) | |
| 월평균급여(만원) | | | | | 0.019 |
| ≤150 | 56(76.7) | 10(13.7) | 7(9.6) | 0(0.0) | |
| 151≤ | 119(80.4) | 24(16.2) | 2(1.4) | 3(2.0) | |
| 평균 근무시간(시간/일) | | | | | 0.018 |
| ≤9 | 156(81.3) | 27(14.1) | 8(4.2) | 1(0.5) | |
| 10≤ | 19(65.5) | 7(24.1) | 1(3.4) | 2(6.9) | |
| 평균 환자수(일) | | | | | 0.907 |
| ≤30 | 118(79.7) | 23(15.5) | 5(3.4) | 2(1.4) | |
| 31≤ | 57(78.1) | 11(15.1) | 4(5.5) | 1(1.4) | |
| 업무에 대한 만족도 | | | | | 0.000 |
| 만족 | 127(88.2) | 13(9.0) | 3(2.1) | 1(0.7) | |
| 불만족 | 48(62.3) | 21(27.3) | 6(7.8) | 2(2.6) | |
| 업무에 대한 적성 | | | | | 0.000 |
| 맞는다 | 144(84.7) | 21(12.4) | 5(2.9) | 0(0.0) | |
| 맞지 않는다 | 31(60.8) | 13(25.5) | 4(7.8) | 3(5.9) | |
| 치과위생사직에 대한 전환의사 | | | | | 0.271 |
| 전환할 의사가 있다 | 65(73.0) | 18(20.2) | 4(4.5) | 2(2.2) | |
| 전환할 의사가 없다 | 110(83.3) | 16(12.1) | 5(3.8) | 1(0.8) | |
| 직장에서의 상사나 동료 간의 유대관계 | | | | | 0.018 |
| 좋다 | 161(81.3) | 26(13.1) | 9(4.5) | 2(1.0) | |
| 나쁘다 | 14(60.9) | 8(34.8) | 0(0.0) | 1(4.3) | |
| 계 | 175(79.1) | 34(15.4) | 9(4.1) | 3(1.4) | |

에서 경도, 중등도, 중증의 우울수준을 보였고($p=0.000$), 직장에서의 상사나 동료 간의 유대관계는 「유대관계가 좋지 않다」는 군에서 경도, 중증의 우울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p=0.018$)(표 2).

3.3 우울수준

3.3.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우울수준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우울수준은 교육수준별로 전 문대졸 이하 군일수록 유의하게 높았다($p=0.043$). 그러나 연령, 결혼상태, 취미생활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3).

[표 3]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우울수준

| 구 분 | 명 | 우울수준 평균±표준편차 | p-값* |
|---------|-----|-----------------|-------|
| 연령(년) | | | 0.416 |
| ≤25 | 153 | 43.41±7.80 | |
| 26≤ | 68 | 42.51±6.97 | |
| 결혼상태 | | | 0.412 |
| 미혼 | 160 | 43.39±7.71 | |
| 기혼 | 61 | 42.45±7.11 | |
| 취미생활 | | | 0.131 |
| 한다 | 121 | 42.43±7.67 | |
| 안한다 | 100 | 43.98±7.35 | |
| 교육수준 | | | 0.043 |
| 전문대졸 이하 | 202 | 43.45±7.55 | |
| 대졸 이상 | 19 | 39.78±6.86 | |
| 계 | 221 | 43.13±7.55 | |

3.3.2 직업관련 특성별 우울수준

직업관련 특성별 우울수준은 월평균급여별로 평균급 여가 적을수록($p=0.046$), 업무에 대한 만족도별로는 「불 만족」인 군일수록($p=0.000$), 업무에 대한 적성별로는 「맞지 않는다」는 군일수록($p=0.000$), 직장에서의 상사나 동료 간의 유대관계별로는 「유대관계가 좋지 않다」는 군일수록 유의하게 높았다($p=0.002$)(표 4).

3.3.3 건강관련 행위별 우울수준

건강관련 행위별 우울수준은 주관적인 건강상태별로는 「건강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군일수록($p=0.000$), 아침식사여부별로는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군일수록($p=0.009$), 음주빈도별로는 음주를 하는 군일수록($p=0.023$), 규칙적 운동여부별로는 주당 3회 이상, 회당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 하지 않는 비규칙적인 군일 수록 유의하게 높았다($p=0.003$)(표 5).

[표 4] 직업관련 특성별 우울수준

| 구 분 | 명 | 우울수준 평균±표준편차 | p-값* |
|----------------------|-----|-----------------|-------|
| 근무경력(년) | | | 0.923 |
| ≤3 | 138 | 43.17±7.86 | |
| 4≤ | 83 | 43.07±7.05 | |
| 월평균급여(만원) | | | 0.046 |
| ≤150 | 73 | 44.57±7.14 | |
| 151≤ | 148 | 42.42±7.67 | |
| 평균 근무시간(시간/일) | | | 0.126 |
| ≤9 | 192 | 42.83±7.34 | |
| 10≤ | 29 | 45.13±8.70 | |
| 평균 환자수(일) | | | 0.583 |
| ≤30 | 148 | 42.93±7.69 | |
| 31≤ | 73 | 43.53±7.29 | |
| 업무에 대한 만족도 | | | 0.000 |
| 만족 | 144 | 41.20±7.08 | |
| 불만족 | 77 | 46.75±7.08 | |
| 업무에 대한 적성 | | | 0.000 |
| 맞는다 | 170 | 41.54±7.15 | |
| 맞지 않는다 | 51 | 48.45±6.35 | |
| 치과위생사직에 대한 전환의사 | | | 0.078 |
| 전환할 의사가 있다 | 89 | 44.22±7.58 | |
| 전환할 의사가 없다 | 132 | 42.40±7.47 | |
| 직장에서의 상사나 동료 간의 유대관계 | | | 0.002 |
| 좋다 | 198 | 42.59±7.55 | |
| 나쁘다 | 23 | 47.82±5.85 | |
| 계 | 221 | 43.13±7.55 | |

[표 5] 건강관련 행위별 우울수준

| 구 분 | 명 | 우울수준 평균±표준편차 | p-값* |
|-----------|-----|-----------------|-------|
| 주관적인 건강상태 | | | 0.000 |
| 건강하다 | 173 | 41.77±7.23 | |
| 건강하지 못하다 | 48 | 48.04±6.64 | |
| 아침식사 | | | 0.009 |
| 매일/가끔 | 156 | 42.28±7.58 | |
| 안 먹는다 | 65 | 45.16±7.12 | |
| 간식여부 | | | 0.129 |
| 매일/가끔 | 205 | 43.35±7.52 | |
| 안 먹는다 | 16 | 40.37±7.57 | |
| 음주빈도 | | | 0.023 |
| 매일 | 34 | 44.41±8.66 | |
| 가끔 | 129 | 43.83±6.32 | |
| 안한다 | 58 | 40.82±8.91 | |
| 규칙적 운동 | | | 0.003 |
| 규칙적 | 76 | 41.07±7.72 | |
| 비규칙적 | 145 | 44.21±7.25 | |
| 수면시간(일) | | | 0.094 |
| 7-8 | 157 | 42.59±7.72 | |
| <7 or 8< | 64 | 44.46±7.00 | |
| 계 | 221 | 43.13±7.55 | |

3.3.4 직무스트레스요인별 우울수준

직무스트레스요인별 우울수준은 업무요구도별로는 업무요구도가 높을 때(p=0.007), 업무자율성별로는 업무자율성이 낮을 때(p=0.015), 직장 내 상사의 지지도별로는 상사의 지지도가 낮을때 유의하게 높았다(p=0.003)(표 6).

[표 6] 직무스트레스요인별 우울수준

| 구 분 | 명 | 우울수준 | p-값* |
|-----------------|-----|------------|-------|
| | | 평균±표준편차 | |
| 업무요구도 | | | 0.007 |
| 낮다 [†] | 136 | 42.05±7.51 | |
| 높다 [‡] | 85 | 44.85±7.33 | |
| 업무자율성 | | | 0.015 |
| 낮다 [†] | 123 | 44.54±8.10 | |
| 높다 [‡] | 98 | 42.01±6.91 | |
| 상사의 지지도 | | | 0.003 |
| 낮다 [†] | 112 | 44.59±7.37 | |
| 높다 [‡] | 109 | 41.63±7.47 | |
| 동료의 지지도 | | | 0.080 |
| 낮다 [†] | 172 | 43.61±7.33 | |
| 높다 [‡] | 49 | 41.46±8.12 | |
| 계 | 221 | 43.13±7.55 | |

*. †. ‡: 각 총점을 중앙값을 기준으로 낮다와 높다로 나눔

3.4 우울수준과 관련변수와의 상관관계

우울수준과 관련변수들과의 상관관계는 업무에 대한 만족도(r=-0.351, p=0.000), 업무에 대한 적성(r=-0.386, p=0.000), 직장에서의 상사나 동료 간의 유대관계(r=-0.212, p=0.002), 주관적인 건강상태(r=-0.343, p=0.000), 상사의 지지도(r=-0.284, p=0.000), 동료의 지지도(r=-0.243, p=0.000)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업무의 요구도(r=0.163, p=0.015)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7).

[표 7] 우울수준과 관련변수와의 상관관계

| 구 분 | 우울수준 | |
|----------------------|--------|-------|
| | 상관계수 | p-값* |
| 업무에 대한 만족도 | -0.351 | 0.000 |
| 업무에 대한 적성 | -0.386 | 0.000 |
| 직장에서의 상사나 동료 간의 유대관계 | -0.212 | 0.002 |
| 주관적인 건강상태 | -0.343 | 0.000 |
| 업무요구도 | 0.163 | 0.015 |
| 상사의 지지도 | -0.284 | 0.000 |
| 동료의 지지도 | -0.243 | 0.000 |

4. 고찰

우울은 자신의 생활환경, 미래의 불확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체계에 의해서 발생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는 곧 우울로 이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17]. Blehar, M.C. & Oren, D.A[18]연구에서는 정신건강 중에서도 우울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상대적으로 우울증에 대한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치과위생사라는 직업군은 우울증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조직원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작업성과 저하 및 이직과 같은 조직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구성원들의 역할 수행에 장애요소가 되어[12], 결국 환자에게 제공되어지는 간호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수준을 파악하고, 그 관련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임상 치과위생사의 우울수준은 정상군 79.1%, 경도 우울군 15.4%, 중등도 우울군 4.1%, 중증 우울군 1.4%로 나타났다. 이러한 우울수준은 이 등[19]의 연구에서 정상군 78.5%, 경도 우울군 11.2%, 중등도 우울군 5.7%, 중증 우울군 4.6%로 보고한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인구사회학적, 직업관련 특성으로 전문대졸 이하군, 월평균 급여가 적은 군, 업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는 군, 업무에 대한 적성이 맞지 않는다는 군, 직장에서의 상사나 동료간의 유대관계가 좋지 않다는 군에서 우울수준이 높았다. 교육수준과는 이 등[19]의 연구, 이 와 김[20]의 연구와 유사한 양상으로 고학력일수록 의료지식과 기술에 대한 질이 높아 업무의 부담감이 낮고 직무스트레스가 감소되어 우울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월평균 급여와는 이 등[1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업무에 대한 만족도와는 정[21]의 연구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업무에 대한 적성이 맞지 않는다는 군, 직장에서의 상사나 동료 간의 유대관계가 좋지 않다는 군에서 높은 우울수준을 보이는 것은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건강관련 행위별로는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는 군,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군, 음주를 하는 군,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군에서 우울수준이 높았다. 주관적인 건강상태와는 한[2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적절한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효과적이어서 우울수준을 감소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직무스트레스 요인별로는 업무요구도가 높은 군, 업무자율성이 낮은 군, 직장 내 상사의 지지도가 낮은 군에서 우울수준이 높았다. 이는 윤[2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고, LaRocco 등[24]은 사회적 지지가 우울증 증상

을 감소시켜 완화해 준다고 보고 하였다.

우울수준과 관련변수들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업무에 대한 만족도, 업무에 대한 적성, 직장에서의 상사나 동료 간의 유대관계, 주관적인 건강상태, 상사의 지지도, 동료의 지지도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업무의 요구도와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단면연구로 D도시의 일부 치과위생사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로 전체 치과위생사에게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제한적인 변수만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제한점이 있으며 변수들 간의 직·간접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대상을 확대하고 좀 더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치과위생사의 우울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업관련 특성, 건강관련행위,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들의 우울을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여가활동을 통한 우울증 예방, 정신건강 생활실천 프로그램 개발 등 여러 인자들의 개선과 시행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임상 치과위생사들의 우울수준을 파악하고, 관련요인을 알아보고자 D도시 소재 치과외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221명을 대상으로 2009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조사대상 치과위생사의 우울수준은 정상 군 79.1%, 경도 우울군 15.4%, 중등도 우울군 4.1%, 중증 우울군 1.4%로 나타났다.
2. 우울수준은 전문대졸 이하 균일수룩($p=0.043$), 월평균급여가 적을수록 ($p=0.046$),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불만족」인 균일수룩($p=0.000$), 업무에 대한 적성이 「맞지 않는다」는 균일수룩($p=0.000$), 직장에서의 상사나 동료 간의 「유대관계가 좋지 않다」는 균일수룩($p=0.002$),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균일수룩($p=0.000$),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균일수룩($p=0.009$), 음주를 하는 균일수룩($p=0.023$),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균일수룩($p=0.003$), 업무요구도가 높을 때($p=0.007$), 업무자율성이 낮을 때($p=0.015$), 직장 내 상사의 지지도가 낮을 때($p=0.003$) 우울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3. 우울수준과 관련변수들과의 상관관계는 업무에 대한 만족도($r=-0.351$, $p=0.000$), 업무에 대한 적성($r=-0.386$, $p=0.000$), 직장에서의 상사나 동료 간의 유대관계($r=-0.212$, $p=0.002$), 주관적인 건강상태($r=-0.343$, $p=0.000$), 상사의 지지도($r=-0.284$, $p=0.000$), 동료의 지지도($r=-0.243$, $p=0.000$)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업무의 요구도($r=0.163$, $p=0.015$)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볼 때, 우울수준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업관련 특성, 건강관련 행위 뿐만 아니라 직무스트레스 요인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여러 요인들을 개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시행 및 관리방안이 모색되어 향상을 통한 우울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1] 김수연, 장세진, 김형렬, 노재훈. 서비스직 근로자의 감정노동과 우울수준. 대한산업의학회지. :14(3):227-235, 2002.
- [2] 김영철, 정향균, 이시형. 일반성인에서의 생활스트레스가 정신건강 및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28(2):282-291, 1989.
- [3] Cooper CL. The stress check. New Jersey, Prentice Hall, Spectrum. 1981.
- [4] Public Health Service. Healthy people 2000:national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objective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1.
- [5] 이경순. 간호원의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6] 이영수. 일부 산업장근로자들에 있어서 스트레스 자각정도와 건강습관과의 관련성. 예방의학회지. :23(1):33-42, 1990.
- [7] 정기택.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된 변화와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 예방의학회지.:37(1):1-5,2004.
- [8] 권수진. 치과위생사 근로생활의 질(QWL)의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 고신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 [9] 이선미. 치과위생사의 업무스트레스 및 강인성과 소진에 관한연구. 한국구강건강증진학회지. :1(1):1-12, 2000.
- [10] Hauenstein EJ, Boyd MR. Depressive symptoms in young women of the Piedmont prevalence in rural women. Women Health.:21(2-3):105-123, 1994.
- [11] 이미옥. 임상간호사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과의

- 관련성.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12] 김진원. 직무스트레스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13] Aneshensel CS. Social stress: Theory and research. *Ann Rev Sociol* .:18(1):15-38, 1992.
- [14] Karasek RA, Theorell T, Schwartz JE, Schnall PL, Pieper CF, Michela JL. Job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the prevalence of myocardial infarction in the US Health Examination Survey(HES) and the Health and Nutrition Survey (HANES). *Am J Public Health*.:78(8):910-918, 1988.
- [15] Chang SJ. A Study on the Distribution and Risk Factors for Psychosocial Distress, and the Development Worksite Stress Reduction Program.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1.
- [16] Zung WWK. A self-rating depression scale. *Arch Gen Psychiatry*.:12(1):63-70, 1965.
- [17] Beck AT. The development of depression, a cognitive model : The psychology of depression, Contemporary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1974.
- [18] Blehar, M.C. & Oren, D.A. Gender difference in depression. *Medscape womens Health*.:2(2):3, 1997.
- [19] 이미옥, 류소연, 변익진, 박정희. 일부 임상간호사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련성. *조선의대논문집*.:29(2):26-37, 2004.
- [20] 이동수, 김지혜. 직무스트레스가 정신과적 증상에 미치는 영향-성별에 따른 자존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신경정신의학*.:39(6):999-1009, 2000.
- [21] 정수정. 임상간호사의 의사소통유형과 대인관계 및 우울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22] 한미진. 여성노인의 수면과 인지기능, 우울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 [23] 윤현숙. 대학병원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및 사회심리적 요인과 정신건강과의 관련성.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24] LaRocco JM, House JS, French JR Jr. Social support, occupational stress and health. *J Health Soc Behav*.:21(3):202-218, 1980.

한 세 영(Se-Young Han)

[정회원]



- 2008년 2월 : 충남대학교 보건학과(보건학 석사)
- 2009년 3월 ~ 현재 : 혜전대학 치위생과 외래강사

<관심분야>
예방치학, 구강보건